

# 구역성경공부

## DECEMBER 2024

YSPC 영생장로교회  
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해 (요 17:24)

제목/본문

### 그리스도의 성장

“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...

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” (누가복음 2:40, 52)

## 서론

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자라셨습니다. 누가는 예수님이 “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”라고 기록합니다(눅2:52). 성부를 알고 사랑하며 “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”고 말씀하신(요8:29) 성자가 성부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고 말합니다. 여기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

## 본론

**하나님의 사랑:**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호의[헬라어, '카리스']를 점점 더 많이 받았다고 말합니다. 몇 구절 앞에서는 예수가 “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”하였고 “하나님의 은혜[카리스]가 그의 위에 있더라”고 말합니다(40절). 여기서 은혜는 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움의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.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그분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(시145:8-9).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특별히 큰 사랑과 은혜를 받으셨습니다.

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“아낌없이/은혜롭게 주셨다”(‘카리스’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)라고 말합니다. 똑같은 단어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예수를 위해 고난 받는 특혜가 신자들에게 “아낌없이/은혜롭게 주어졌다”라고 사용됩니다.

**그리스도의 성장:**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, 지적으로, 영적으로 자라셨습니다.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아이로서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이 자라면서 어른으로 자라 갔을 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셨습니다.

**그리스도께 임한 하나님의 사랑:** 하나님은 성자로서의 예수님을 본래부터 사랑하셨지만,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완벽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더욱 기뻐하셨습니다. 성자 예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“나

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”(요4:34)라고 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. 이런 면에서 성자에 대한 성부의 사랑은 이중적입니다. 하나는 자연스럽고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(성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)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인해 느끼신 기쁨의 사랑(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)입니다. 첫 번째 사랑은 더 커질 수 없지만, 두 번째 사랑은 예수님이 순종함으로써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.

**그리스도의 삶:**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습니다.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은 “순종을 배우는 것”이었습니다. 광야에서, 겟세마네에서, 십자가에서 여러 유혹과 시험,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은 성부를 점점 더 기쁘게 하였습니다. 특별히,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며, 하나님 ‘보시기에 좋은’ 새창조사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.

**그리스도인의 삶:**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써 받는 사랑도 누리게 됩니다.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.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에 그분이 받으신 사랑을 함께 누리며 그분의 본을 좇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.

## 토의질문

1. 성부가 성자에게 품으시는 이중적인 사랑에 대해 생각해봅시다. 그리고 그 중 어떤 사랑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는지와 어떻게 더 커질 수 있었는지 대답해 보세요.
2.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서로 나눠봅시다.

## 결론

그리스도인은 항상 “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?”라는 질문을 하면 살아야 합니다.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데 있어야 합니다.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. 바울의 고백과 같이 “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” 힘쓰며(고후5:9),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해가는 영생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.